

토론토 홈경기 개최 캐나다 정부 승인만 남았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홈구장 로저스센터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캐나다 연방 정부의 승인만 남았다.



그러나 토론토시의 홈경기 사용 승인이 나면서 로저스센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캐나다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AP통신은 1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토론토시가 토론토 구단의 홈경기를 승인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의 허용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거세지자, 캐나다 연방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감

이에 토론토 구단은 뉴욕 버펄로의 트리플A 홈구장,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스포링캠프 구장을 홈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토론토에서 뛰는 류현진은 홈구장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BC 교사 2명 제자와 성관계 교사직 '박탈'



“교사 B씨 17세 여고생에게 관계 전술 먹여”

자와 9월부터 성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 전 2년 동안 가르쳤던 18세 여학생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졸업한 지 몇 주가 안 된 17세 여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BC주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교사 2명의 파면이 결정됐다.

사건 발각 직후 A씨를 고용한 학교 측에서는 A씨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2019년 12월 A씨를 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B씨가 특히 17세 여학생과 관계를 맺기 전 학생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의 위법행위가 장시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7일 BC 교사 규제 위원회는 BC주 소재 학교의 고등학교 교사인 A씨와 B씨가 각각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이들의 교사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A씨의 교사 자격증을 지난 7일부로 취소했으며, 앞으로 15년 간 A씨에게 교사직을 박탈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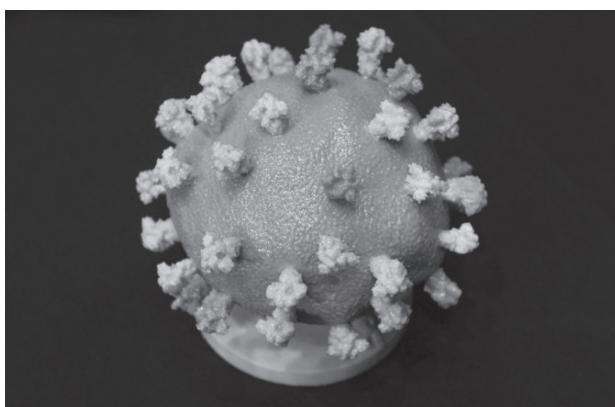
또한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은 처분이 익명의 다른 교사 B씨에게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남교사인 B씨는 그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 두 명의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학교 측에 적발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명은 졸업하

한편,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의 이름이나 이들이 가르쳤던 학교, 근무했던 학교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회 측은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착취를 당한 학생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일관된 것으로 전했다.

"러시아, 코로나 백신 해킹 시도" 美·英·캐나다의 경고

러시아 해커 조직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 기술 정보를 해킹하려 했다고 영국과 미국, 캐나다 정부가 경고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러시아 해커 조직인 'APT29'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업체들과 연구 기관의 정보를 해킹하려 했다고 밝혔다.

로 목표로 했는지, 실제로 정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주요 국가의 백신 연구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커들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스피어피싱과 악성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 조직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러시아의 유명 해커 조직으로 '코지 베어(Cozy Bear)'로 불리기도 한다. 'APT'는 국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해커 조직에 대해 미 보안업체가 붙이는 명칭이다. 사실상 러시아 정부가 전세계 각국의 코로나 치료 연구 성과를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날 미국 국가안보국(NSA), 캐나다의 연방통신기관(CSE)도 영국의 성명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NCSC는 "팬데믹(대유행)과 싸우는 노력에 비열하게 공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고, 도미니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해킹 시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라브 장관은 또 "무모한 행동으로 이기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고도 비판했다.

위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앤 누버거 사이버안보부장은 "APT29는 오랜기간 정부, 외교, 싱크탱크, 의료, 에너지 기관들을 타깃삼아 해킹을 해왔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이득을 누리려 하는 이들로 인해 NSA는 주요 사

이버 보안 권고를 공동으로 내린다"고 말했다.

캐나다 CSE 역시 "의료 전문가들이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모든 자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을 방해한다"고 했다. CSE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캐나다의 코로나19 연구 자료를 탈취하려는 해외 세력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는 이같은 영국의 주장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타스 통신에 "우리는 누가 영국 제약회사와 연구소들을 해킹했는지에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러시아는 이러한 모든 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코리아 알버타 저널 ALBERTA JOURNAL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매주 금요일 발행

연락처 : 전화 (403) 616-7755

Email: 회사대표 abjournal.ca@gmail.com

또는 albertajournal@gmail.com

www.abjournal.ca

주인 직접 판매

Laundromat. Dry cleaning. Depot. For sale

Good lease. Great potential. Original investment over 200k.

Asking \$ 149 900 / 2 years old

For info call Bob@ 403 990 7235

고추의 맛을 같다

김치가 맛있으면 밥맛이 살맛난다.
맛난 김치와 정갈한 반찬, 반조리식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열무김치 3.6kg	부추김치	우영조림	부대찌개
배추김치 3.6kg	오이소박이	연근조림	감자탕
백김치 3.6kg	깍두기	마늘쫀두침	오삼불고기
총각김치 3.6kg	겉저리	무우말랭이	LA 갈비
나박김치 3.6kg	고추피클	쇠장조림	돼지갈비
동치미 3.6kg	갯잎절임	계란장조림	소불고기
맞춤김치 3.6kg	고추절임	오이지무침	떡볶이
파김치	호두멸치	김치해물전	

가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김치! 직접 담그기엔 염두가 나지 않고 마트에서 사먹긴 부담스러우시나요? **Red House**에서 주문하세요. 진짜 엄마 손맛으로 집에서 정성스레 담그어 판매합니다.

모든 음식은 맛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화주세요.

Red House | 403.402.2774

Math Tutor - Alex

수학 · 물리 · 화학 개인 레슨

Math (10-20-30), Physics (20-30), Chemistry (20-30)

- 대상: 고등학생/영재학교 (GATE) 학생 환영
- 수업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레슨
- 교사 경력:
 -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U of C
 - 고등학교 수학 · 물리교사 교직원 자격증
 - 고등학생, 대학생 개인레슨 다년경험

전화: (영어) 403-282-9220 (한국어) 403-264-4426

이메일: bageorge@topnotchcanada.ca